

Ⅲ. 지역경제일지 (2024.2.1~ 2.29일)

▷ 2.5일 : 인천시, 물동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예정

- 인천시는 인천항과 경인항의 물동량 증가에 기여한 선사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32억원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발표
 - 인천항과 경인항의 신규항로 마련과 물동량 증대,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통한 인천지역 항만 경쟁력 제고를 기대

▷ 2.12일 : 인천e음 사용액 감소세

- 인천e음 사용액이 '23.9월중 3,574억원에서 '23.12월중 2,323억원으로 급감
 - 지난해 9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의 캐시백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사용액이 빠르게 감소
- 인천시는 캐시백 지원 대상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'23.10~12월중 캐시백 비율을 임시로 상향(5% → 7%)하고 '상생가맹점' 확대를 추진했으나, 인천e음 사용액의 감소세가 지속
 - '24.1월부터 캐시백 비율 임시 상향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액 감소세가 가속화될 가능성

▷ 2.12일 : 인천지역 종합소득, 전국 최하위권 기록

- 인천의 평균 종합소득은 2,627만원으로, 전국 17개 시·도중 16위를 기록
 - 국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'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현황'에 따르면, 인천은 강원(2,611만원) 다음으로 가장 낮은 종합소득을 기록
 - 종합소득은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
- 인천은 종합소득 상위 20%와 하위 20%의 평균 종합소득에서 모두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
 - 인천의 상위 20% 종합소득(8,428만원)은 14위, 하위 20% 종합소득(256만원)은 15위를 기록

▷ 2.15일 : 인천, 국토부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

- 국토부는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자체(인천, 서울, 부산, 충남 서산, 경북 김천)를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
 - 디지털 물류실증사업은 지역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물류산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접목시키는 사업으로, 2021년부터 추진중
- 인천시는 디지털 센서 등을 활용하여 화물차량 적재공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는 '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 시스템 구축' 사업을 진행할 계획

▷ 2.25일 : 인천지역 건설업체 폐업 급증 우려

- 인천시와 대한건설협회·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등에 따르면, 인천지역 건설업체 중 올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226여 개사로 추산*
 - * 경기일보 “고금리·미분양… 줄줄이 ‘직격탄’”(2.26일자 조간)을 재인용
 - 인천지역 건설업체 등록말소 처분 건수가 2022년중 193건, 2023년중 222건을 기록했음을 감안하면, 현재까지 6배에 가까운 급증으로 추산
- 고물가에 따른 자재비 상승과 고금리, 미분양 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원청사 및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폐업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